

주요공지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성전기금 현황보고 >>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No	Name	Amount
1	Iris ID Systems	1,300	33	박애순	500	65	오용운	2,000	97	장문국	1,000
2	요셉회/대건회/야고보회	1,704	34	박재영	1,500	66	오진아	2,000	98	장수지	1,000
3	주일학교	500	35	박정훈	1,500	67	오선아		99	장중현	620
4	유스그룹	400	36	박정희	100	68	오현아	100	전광수	1,000	
5	반석회	2,000	37	박화성	1,000	69	오현주 (부제님)	12,000	101	정명숙	300
6	이스트브론스윅 구역	1,167	38	방숙자	400	70	우성현	1,000	102	정진오	1,000
7	성모회	5,000	39	배인경	500	71	우영인	1,000	103	조순자	300
8	Vesta-Oh LLC	5,000	40	백상현	1,500	72	유병기	3,200	104	조인	1,000
9	강식	1,200	41	백영숙	1,000	73	육순재	5,000	105	진윤식	500
10	곽신규	1,000	42	변상민	1,000	74	윤석로 (부제님)	1,000	106	채희백	5,000
11	곽울리안나	200	43	변상원	1,000	75	윤승현	1,000	107	최경하	1,200
12	김귀옥	300	44	변태용	4,700	76	윤준희	5,000	108	최영욱	1,000
13	김도용	500	45	서경호	1,000	77	이광호	3,000	109	최영찬	2,000
14	김삼식	1,100	46	서정근	1,500	78	이기순	500	110	최완준	1,000
15	김성일	1,500	47	서현주	1,000	79	이막동	500	111	최승웅 (부제님)	5,000
16	김수완	5,000	48	성낙순	500	80	이문식	1,000	112	최위숙	500
17	김순옥	1,000	49	성낙철	1,000	81	이보현	1,000	113	최진호	1,000
18	김안나	1,000	50	성순영	500	82	이성문	1,200	114	최현지	2,000
19	김영필	2,000	51	성준엽	1,000	83	이숙희	500	115	최춘옥	2,840
20	김정숙	500	52	손경진	300	84	이순분	500	116	추승호	1,000
21	김태경	600	53	손영렬	1,000	85	이용문	2,000	117	토레스 은식	2,000
22	김진	1,000	54	손영수	1,000	86	이용범 (신부님)	3,000	118	하건철	1,100
23	나채국	1,000	55	손중철	3,000	87	이재구	1,000	119	한상철	1,000
24	나한복	1,000	56	손흥구	1,500	88	이재서	1,000	120	한크리스토퍼	1,000
25	문형곤	100	57	신준호	1,200	89	이중권	1,500	121	허중	1,200
26	민병집	2,400	58	안을봉	1,000	90	이준원	100	122	황분숙	500
27	박규희	300	59	안청자	500	91	이호용	1,000	123	황태진	3,000
28	박기호	1,000	60	안현정	1,500	92	이흥례	60	124	익명 (1)	1,000
29	박덕화	500	61	양영길	1,000	93	임문수	500	125	익명 (1)	1,000
30	박동준	300	62	염기선	3,000	94	임성주	1,000	126	익명 (3)	600
31	박락준	2,000	63	오경숙	3,000	95	임소라	100	127	익명 (2)	40
32	박병태	1,200	64	오석미	1,000	96	임영자	1,000	128	미국신자 (79)	103,075

약정금액: \$279,316.43/\$300,000 (93.11%), 납부금액: \$268,871.43/\$300,000 (89.62%)

연중 제 13주일

2026년  
6월 28일

미사 시간 안내

평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금-9:00 AM  
화-금 미사전 묵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염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 제 1독서 열왕기 4,8-11.14-16~

# 화답송 시편 89(88),2-3.16-17.18-19(© 2~7)



후렴.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제 2독서 로마서 6,3-4.8-11

# 복음 환호송 베드로 2,9 참조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복음 마태오 10,37-42

# 성가 입당 55

봉헌 216, 513

성체 171, 163

파견 200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원준 - 가족
- 이종선(헤레나) - 최세레나&최미카엘
- 성경숙(아가다) - 성안드레아
- 최강섭(요한) - 가족
- 김종호(베드로) - 히아나스타시아
- 이은례(데레사) - 박두선(요셉)
- 황진영(바오로) - 유프란치스코
- 최준혁 - 가족
- 광창진(스테파노) - 광루시아
- 김삼식(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박두선(요셉)
- 이계영(프란치스코) 이명자 (세실리아) - 최레지나,이규순(미카엘) 송광석(어거스틴)

★ 미사지향 (생미사)

- 정윤석(토마스) - 가족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채미영(데레사) - 변인순(엘리자벳)
- 박정화(요셉) - 박재영(요아킴)
- 윤주은 - 김수잔
- 박지나(안젤리나) 졸업 축하 - 이서형(요안나)
- 고명진 (요안나) 졸업 축하 - 사우스브런스위, 이서형(요안나)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1,148(126명)	2차헌금.....\$395
• 교무금.....\$1700	
김수잔(4~6)	김진(4~6) 김순옥(4~6)
허정(6)	이재구(1~6) 이막동(5~8)
• 감사금.....채희백(\$500) 김귀옥(\$200) 오석미(\$200)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1.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2.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고,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3. 바닥 청소
4. 성당안의 가전제품, 큰가구, 규격외의 부피가 큰 쓰레기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과 상의후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세요.
5. 성당건물을 사용한 사람은 나올때 반드시 불을 끄고 문을 잠가주세요.
6. 성당밖에 담배꽂초를 버리지 마세요. (경당 옆 흡연 금지)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클라라)
곽 율리안나	김정선(스텔라)	이 마이클



★ 2차헌금 (6/28) Peter's Pence

★ 빵과 포도주 봉헌

6/28 배인경 성순영	7/5 전광수 전옥주
7/12 성준엽 성해성	7/19 최숙희.최윤규
7/26 박화성 윤규옥	

★ 빵과 포도주 봉헌 및 친교 봉사 구역별 일정

7/19 올드브릿지	8/16 이스트브런스위	9/20 피스브릿지
10/18 노스브런스위	11/15 럽거스	12/20 먼로
2/21 사우스브런스위	3/21 썸머셋	4/18 에디슨
		5/17 올드브릿지

★ 2026 Bishop's Annual Appeal

메타천 고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6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34,800 이며, 아직 \$4,200 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 미사시간 중 장애를 내리고 무릎 꿇을때 소리가 나지않게 최대한 조심해서 장애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영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장례 미사가 7/2일 목요일 오전 11:00 에 본당에서 신부님 집전으로 있습니다.

★ 성당보수기금이 모두 마련될때까지 모든 감사헌금은 성당보수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미사책> 2026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일년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장이나 헌금봉헌함에 봉투와 함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책 95불, 큰책 125불입니다.

★ 노스에디슨 구역 모임

일시/장소: 6월 28일(주일) 미사 후 / 루이지스 피자

★ 써머셋 구역 모임

일시/장소: 6월 28일(주일) 미사 후 / 루이지스 피자

★ 복사단 피자파티

일시/장소: 6월 28일(주일) 미사 후 / 친교실

Happy Pope's Day



★ 제 1독서

열왕기4,8-11.14-16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 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 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로마서 6,3-4.8-11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복음

마태오10,37-42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았으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복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송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